

송지호 서신 (17-7-10)

평안들 하셨는지요? 임 회장님과 중보목장 그리고 성광 가족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 올립니다. 성광의 든든한 울타리와 아낌 덕택에 사역을 충실히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고국의 하늘아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순간이 행복하고 기대가 되는 삶입니다. 여름에 안식월로 들어오게 된 목적은 아내의 건강치료와 아이들 전세방을 얻어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제일 큰 목적은 한국 일정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사모하는 주님께 집중해서 더 깊이 교제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다시 사역지로 돌아 가는 것 입니다. 입국 전 임회장님께 허락 상신을 드리고 소식을 드렸었지만 지면으로 이렇게 사역 소식과 이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9월8일까지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가족이 살아가는 이야기

5월 7일부터 일 주일간 군 복무 중인 재홍이와 재관이가 휴가 날짜를 맞추어 알마타로 휴가를 왔습니다. 두 칸짜리 아파트를 빌려서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지내면서 행복하고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불과 매트리스를 가져가야 하고 시내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내려 갔다 왔습니다. 왕복 2200 km를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었지만 너무나 기쁘고 행복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떨어져 있었던 아이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 생활 가운데 살아온 자신들의 이야기들과 장래의 계획들 그리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한국에 보내고 승용차로 사역지로 돌아오는 길에 끝없이 펼쳐진 광야 길을 지나갈 때 뜻밖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없던 들 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게 피어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야생화들이 만발해서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세워진 나무들 사이로 노란색과 보라색이 보여서 내려가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온 지면을 뒤 덮고 있습니다. 유난히 꽃을 좋아하는 아내는 숨이 멎을 것 같은 탄성을 지르기 시작 했습니다. 비가 잠시 멈춘 뒤라서 하늘이 열리지 않았지만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꽃씨를 푸른 하늘로 날려 보내 온 광야를 뒤 덮게 하셔서 저희 부부에게 선물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30분을 그 곳에서 맛본 천국의 황홀함을 뒤로하고 다시 차에 올라 달리는데 또다시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마타에서 약 250km 정도 까지 양

길옆으로 붉게 불들인 맥크(양귀비 과의 붉은 꽃)가 끝없이 펼쳐져서 저희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꽃 하나 피지 않던 광야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숨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지로 올라가던 중에 한 장소에서 차를 멈추고 13년 전을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13년 전 사역지 이동을 위해 자동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그들이 없어서 파킹 겸 자동차를 점검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여행용 돛자리를 펴놓고 김밥을 먹었던 장소 입니다. 벌써 13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오물 투성이 더러운 장소지만 그 때는 우리에게 너무 오아시스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 때 그 길을 지났던 큰 딸 유림이는 연세대학교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한 학기에 한 명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연구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1년을 기다리다가 대학원에 자리가 생겨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역소식>>>>

KFHI 사역 : 교육센터는 방학을 맞이해서 회화 중심의 인턴쉽코스를 하고 있고 전반기 수료식과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한,카 복지센터는 새로운 직업훈련 프로그램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방과후 학교는 방학을 맞이해서 한 달간 어린이 캠프에 한창 입니다. 감사한 것은 교육센터와 복지센터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사역을 은혜 가운데 진행 할 수 가 있었습니다. 다음 편지에서 자세히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성광교회와 기타 사역 : 4월 중순에 알마타에서 열리는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 왔습니다. 개회 o b 설교를 했고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초에 CIS 사역자 대회 겸 카작 총회로 상뻘째르부르크에 다녀왔습니다.오랜 만에 CIS 전지역 선생님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제가 한국에 방문하는 기간 동안 목자 중심으로 사역을 하도록 위임하고 왔습니다.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사 할 따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KWMA에서 주관하는 "문화교실"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소식이 너무 길었네요. 주안에서 강건하시고 성광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기도제목

1. 영육간에 온 가족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기쁨 부으심을 체험하도록 하소서
2. 한국에서 치료 할 때 강ㄴㅅ 사역자의 관절 및 디스크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하소서
3. 군에 있는 재홍(통역병),재관(조리병)이에게 항상 주의 은혜와 보호가 있도록 하소서
4. ㄴㅅ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예비하신 리더를 주셔서 잘 양육하게 하소서
5. 가정 교회 목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며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6. 복지센터 입구를 도로포장 해주기로 약속한 시청이 약속을 이행하게 하소서

2017년 7월 10일 송지홍, 강ㄴㅅ (유림, 재홍, 재관) 올림